

發展을 위한 會員의 參與

會長 勳 義 錫

菊花 香氣 그윽한 한 해의 結實을 거두는 季節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本人이 會長으로서 在任한 지난 3年間을 回顧하여 보건데 協會 設立이후 갖 기틀을 잡고 意慾에만 차 있던 協會의 第2代會長으로 就任하여 協會를 全國 水道人 共同의 廣場으로 育成하기 위하여 모든 精誠과 努力을 다하여 왔으며 이제는 어느 程度 기틀을 튼튼하게 마련하였다고 自負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의 協會의 活動相을 간추려 보면 오랜 縣案이었던 國際上水道協會에의 加入에 이어 昨年 10月 日本 京都에서 열린 國際上水道協會 第12회 總會에 多數의 代表를 보낸바 있습니다. 또한 77年 11월에 泰國首都 방콕에서 創立總會를 가진 東亞細亞水道地域會議에의 代表派遣에 이어 今年 11월에 自由中國 台北에서 열리는 同地域會議 第2次 會議에는 19名의 代表를 派遣하기로 되었습니다.

한편 國際上水道協會 科學技術委員會와 傘下 常設小委員會에도 각기 代表를 推薦하여 활발한 活動을 하고 있는 등 國際舞臺에서 國威宣揚과 함께 韓國 水道界의 聲價를 높이고 있다고 自負하는 바입니다.

國內에 있어서의 協會活動은 더욱 意慾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지난 77年의 第1회, 78年의 第2회 水道심포지엄에 이어 今年度에도 釜山에서 第3회 水道심포지엄을 全國의 水道人 150余名

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에 모임을 가진바 있습니다.

둘째로는 協會誌「水道」의 發刊입니다. 協會誌「水道」가 1974年 7月 創刊이후 꾸준히 會誌를 刊行해 왔으나 77年 이후에는 한 號의 欠號도 없이 會誌를 發行하여 今年末로서 誌齡 20號를 記錄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會誌「水道」가 韓國水道界의 얼굴로 名實相符하게 權威를 갖는 專門誌로서 外國과의 交換 등 많은 發展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셋째로는 韓國 水道界의 懸案問題인 施設基準 發刊을 위하여 지난 2年余間 꾸준히 準備하여 온 「上水道施設基準」을 곧 當局의 監修를 받아 年內에 發刊하도록 모든 準備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數 三年內에 이러한 協會의 發展과 実績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會員諸位의 積極적인 參與와 水道界 發展을 위하는 念願이 한데 凝結된 所産이라고 하겠습니다.

協會가 보다 活潑하게 發展하고 또 成長하기 위하여는 會員諸位의 倍前의 參與와 後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韓國 水道界의 계속적인 發展을 이루는 길은 協會의 發展에 있다고 믿어 疑心치 않으며 會員諸位의 積極적인 參與와 後援을 끊임없는 期待하는 바입니다.

1979年 9月 日